

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두산*
박치성**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충격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으로 나타난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경제적 충격으로 상정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중 1990년, 2001년, 2010년의 한국 자료이며 두 사건을 더미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모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한국 사회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개인주의 강화, 가부장적 가족주의 해체, 정치적 보수화 등 한국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충격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의 신뢰회복 등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IMF, 금융위기, 삶의 만족도, 세계가치관조사

1. 서론

2015년에 발표된 OECD 삶의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7위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OECD, 2015). 즉,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2015년에 갑자기 나빠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6.7점인데 비해 한국은 겨우 5점 중반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OECD, 2009).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오래전부터 패턴화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응답

* 제1저자

** 교신저자

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보고서(2015)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국가가 부유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그 상관관계가 비선형적(non-linear)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경제적 요인이 국가별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경제 수준을 달성하면 경제력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1위로 국가 경제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기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군부독재 시절보다 훨씬 민주화되어 개인의 자유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렇듯 한국사회를 나타내는 거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감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떠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있다고 제시한다(강상경, 2012;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서문기, 2015). 객관적 차원은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며 주관적 차원은 사회적 욕구 충족, 가치관과 같은 인식적 차원을 의미한다. 이를 OECD 조사 결과와 더불어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객관적 차원의 요소가 상당히 충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차원의 요소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이외에 다른 영향력 있는 객관적 변수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주관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구조화 되어 나타나게 된 계기를 먼저 검토해야 보다 정밀한 진단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Diener(2013)는 최근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응답자들의 국가별 상황·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응답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삶의 만족도는 구조적 패턴을 보이면서 변화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Diener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한국에서의 낮은 삶의 만족도의 원인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정부 주도 경제 정책들의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우세해졌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 강대국들의 신자유주의 도입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거대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외부경제 충격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 및 이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를 거쳐, 가설검정, 분석결과를 제시 및 해석한다.

II.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개편과 영향력

1.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개편

서구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및 조정 등을 통한 경제적 부의 축적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확충 등으로 이어지면서 케인즈식 복지국가를 만들었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서정민·김현준, 2013). 복지국가의 위기는 곧바로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대안 찾기로 이어졌으며 시카고학파로 대두되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재조명되었다. 시카고학파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최상위 가치

로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서구는 규제 축소, 민영화 등을 통해 이전의 정부 중심의 강력한 시장 통제를 해체시키고자 하였다. 케인즈식 경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 성장동력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도모했으며,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효율성 중심의 경제 질서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생산 중심의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으로 재편시켰으며 자유무역을 통한 생산 요소의 전 지구적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서정민·김현준, 2013). 이로 인해 경제 범위가 국가 수준을 넘어서 세계화 되었으며 IMF, World Bank, WTO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신광영, 2008). 또한 기업의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사적 영역이 보다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재편은 과거 경제 발전을 주도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정부는 단지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중심의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이었다(서정민·김현준, 2013).

1980년대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대처는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국가 기반 사업의 상당부분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공공영역을 해체하여 민간 기업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했으며, 레이건은 소득세법을 간소화하고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탈규제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 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강조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 경쟁의 질서를 보장하는 수호자이며 심판자로서 최소한의 국가 권력만을 발휘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부는 케인즈식 복지 국가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개입하게 된다(Harvey, 2005; Panitch & Konings, 2009).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유연화 등 정책을 구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듦으로써 정부의 시장 개입과 사회 개입이 복지국가 시절에 비해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Cerny, 2006). 게다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시장 이탈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

서 도태되어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구제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현실의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쇠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지주형, 2015) 오히려 적극적인 개입이 발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구조 개혁, 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주창한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공정한 계약에 의한 시장 거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담보할 것이라는 가정은 유토피아적 상상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경제적·합리적 개인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이윤을 담보하는 시장 독점의 방향으로 경제 활동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성장, 도태는 교과서적 상상이었으며 현실은 거대한 자본에 의해 조작되는 시장에서 제한적인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구매력이라는 권력을 가진 거대 자본은 스스로 자유 경쟁의 원칙을 어김으로써 임의적인 가격 책정과 생산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왜곡한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자본의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 자본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통제력이 비워진 자리를 거대 자본의 구매력이 차지하게 되었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국가가 자본에게 권력을 이양해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자유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본의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 자유로운 시장의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의 이상은 현실에서 실현되기에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2.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도입은 서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복지의 확대에 의한 국가 성장력 약화, 이른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써 받아들여진 반면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발전국가¹⁾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하연섭, 2006).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고 사회 내 자본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한 외화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교환관계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본원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외화를 수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지주형, 2015). 이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리게 된다. 한국과 북한은 휴전 이후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1979년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자주 국방을 위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지주형, 2013). 경공업 위주의 산업 지원 정책이 중공업 위주로 바뀌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강력하게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막았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수출업체는 해외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점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신광영, 2008). 그러나 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제한과 수입 통제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국내 상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 즉, 무역으로 인한 이득은 정부 및 대기업이 가져가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의 몫이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노동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강제적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견제하였다(서정민·김현준, 2013).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복수의 학자들이 10.26 사태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부를 신자유주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Heo & Roehrig, 2010; Sonn, 2009; 지주형, 2011). 전두환 정부는 기존의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율화, 안정화, 개방화를 추진해 나갔기 때문

1) 발전국가론은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제도 중심적인 접근으로써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관된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조정, 유치산업 보호, 수출 촉진, 환율 통제 등을 사용했다(김형기, 2016).

이다(이장규, 1991; 강경식, 1992). 그러나 당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발전국가의 해체라고 보기보다는 발전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적 시도라고 보는 면이 더 타당하다(서정민·김현준, 2013). 당시 한국은 중공업 위주의 수출 중심 경제 정책으로 인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여 시장기능이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탈규제, 규제완화 같은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했다(하연섭, 2006). 게다가 미국,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 노동집약적 산업 국가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던 당시 한국의 국제 관계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윤민재, 2016).

그러나 실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충격을 통해 급격하게 유입되어 구조화 되어갔다.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에 있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과 협상은 없었으며 국가 부도에 직면한 정부는 IMF와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경제 개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신광영, 2008).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심각했다.

1987년 민주화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재편이 민주화의 영향을 압도하면서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켰다(신광영, 2008).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수월해졌으며 이로 인해 실업자와 비정규직 종사자가 증가했고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사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신광영, 2008).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또 다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입힌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하여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자 미국의 주택시장의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게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했다. 거대 금융자본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으며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AIG 손해보험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미 정부는 대공황을 우려하여 구제 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을 보호했다. 그러나 AIG 임원들이 정부로부터 제공된 구제 금융을 이용하여 보너스를 제공받은 것이 드러나자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받았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IMF 외환위기 시절을 연상할 만큼 처참했으나 2008년 한국 경제는 1997년 당시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김형주, 2012, 허찬국; 2009).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은 이념의 변화(권혁창·여유진, 1999; 전재호, 2014), 공공 영역의 변화(신광영, 2008; 서정민·김현준, 2013, 지주형, 2015), 문화적 변화(강내희, 2008; 이영자, 2012; 하상복, 2013), 경제 주체의 변화(박재규, 2001; 윤자영, 2012)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변화를 주목한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이 외부경제 충격으로 다가왔던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삶의 만족도 및 영향요인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연구자, 연구 목적에 따라 행복,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개념과 측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UN의 세계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삶의 질 지수, OECD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Diener(2000) 등의 주관적 안녕감 등은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만족을 객관화하여 국가별, 집단별 비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중 가장 상위의 개념은 행복으로써 행복과 각 용어들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측정 및 분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행복과의

관계를 통해 살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Diener(2000)의 지적에 따르면 행복의 구성 요인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지적하고 있다. 행복은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증명되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 Converse, 1976). 위 구분에 따르면 인지적 요인은 상황에 대한 판단 및 평가를 말하며 정서적 요인은 인지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Diener & Diener, 1995; Diener, 2000, 박현숙·권복순, 2006). 삶의 만족도는 행복의 인지적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한 상황이 스스로 설정한 만족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 전체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와 사회 구성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분석 수준 연구를 살펴보면 서문기(2015)의 연구가 있다. 서문기(2015)는 한국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복수준,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 시민사회, 제도신뢰를 제시했으며 분석 결과, 경제 성장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연상(2012)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가구소득, 소득 격차지수, 부패지수 등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이 높고 소득 격차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 집단의 삶의 만족도 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외선·김한곤(1988)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연령,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춘택·박종우(1999)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건강, 경제적 요인, 배우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배우자,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간우선 등(2012)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연구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 발생 시기보다 장애인 본인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

였다. 또한 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문필동·이정화(2015), 윤희정·신자은(2015)의 연구가 추가로 있으며 이외에도 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장진이·이지연, 201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정득·이종석, 2015; 정일진·정재희·김소영·김윤나·김대선·탁진국, 2014; 최형임·문영경, 2013) 등 연구자의 연구 문제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구성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UN의 행복지수 조사는 국내총생산(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 등과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삶의 질 지수는 성평등, 자유도, 소득 수준, 건강, 실업률, 정치, 직업 등을 고려되어 산출되었으며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소득과 자산, 일자리, 주택, 건강, 교육, 일과 삶의 균형,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 복수의 삶의 만족도 지표들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회구조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은 세부적으로 외부 경제적 충격, 사회적 자본, 사회적 형평성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으로 인한 외부 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여러 지표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 하락 요인은 경제적 위기를 검토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전국가적 경제적 위기는 크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표 1〉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구분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발생시기	1997	2008
구조적 문제	-한국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 실패 (시장개방, 금융개방정책으로 인한 국내 유입자본 회수 용이)	-미 금융기관의 지나친 수익 위주 경영시스템 -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무리한 대출 실시)
원인	-정부외환관리 실패 (환율관리 실패, 외환유동성 부족) -대기업,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미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
증상	-금융기관, 기업 연쇄부도 -(한국)경제성장률: (97년) 5.9%, (98년) -5.5%, (99년) 11.3% -(한국)실업률: (97년) 2.6%, (98년) 7.0%, (99년) 6.3% -(한국)상대적빈곤율 ²⁾ : (97년)8.2%, (98년) 10.9%, (99년) 11.4%	-국제금융시장 붕괴 -(한국)경제성장률: (08년)2.8%, (09년)0.7%, (10년) 6.5% -(한국)실업률: (08년) 3.2%, (09년) 3.6%, (10년) 3.7% -(한국)상대적빈곤율: (08년)12.9%, (09년)13.0%, (10년) 12.5% -(한국)절대적빈곤율 ³⁾ : (08년)7.0%, (09년)7.0%, (10년) 6.4%
정부의 대응	-고금리 정책(외자 투자유치) -공적자금 투입: 168조원 -기업 구조조정	-저금리 정책(유동성 확보) -기업 구조조정

두 사건은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로 인해 발생한 외부 경제적 충격이라는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다. IMF 외환위기는 시장개방, 금융개방정책 등 경제자유화 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자유화 정책은 탈규제,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형성된 정책으로써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 외국 자본의 유입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회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외환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등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기업들이 부채 경영에도 불구하고 당시 산업 정책과 금융 관

2)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3)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경제력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함. 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2006년부터 조사되어 발표됨.

행으로 인해 무리한 대기업 지원이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 IMF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통제 시스템의 약화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탈규제화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나친 고부담 고수익 위주의 위험도가 높은 경영방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연쇄 부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직결되었다. 물론 미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는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부실 경영으로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면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게다가 두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IMF 외환 위기에는 정부는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사용한 반면, 세계 금융위기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였다.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율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시 한국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당시 5.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가 -5.5% 성장을 보이면서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으며 실업률은 치솟아 2.6%에서 7.0%로 변화하였다. 세계 금융위기는 3%에 육박하던 경제 성장을 0.7%를 끌어내리면서 실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빈곤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재편에 의한 외부 경제충격은 한국인의 삶의 만족감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1-1 IMF 외환위기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세계 금융위기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참여를 통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크게 Bourdieu(1986)와 Putnam(1995)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면식이나 인식이 제도화되어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는 자원으로 정의했다. Bourdieu의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은 계급 간 차이를 구분 짓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로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Putnam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통한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며 정보 교환 등을 통한 소통을 측면이 강조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Putnam(1995)이 제시한 사회 통합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적용하였고,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구성 개념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하였다. 김혜연(2011)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으로 집단 및 네트워크, 신뢰와 결속, 참여로 구분하여 변수로 측정하였고 정순돌·성민현(2012)과 이영균·최승인(2016)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신뢰와 참여가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이희창(2005)은 사회적 자본을 규범,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나누었으며 신뢰를 좀 더 세분화하여 대인 신뢰, 사회단체 신뢰, 정부 신뢰를 구분하였다. 대인신뢰 중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신뢰와 정부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과의 신뢰,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연구를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크게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참여, 대인관계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1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로서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2-2 사회참여로서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2-3 대인관계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자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 경제적 힘이 결여된 약자들이 핍박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존재해왔다. 특히, Rawls(1971)는 차등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혜택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피해를 모두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Rawls의 주장이다. 사회적인 불우는 빈곤, 기아, 질병 같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중요시 되는 바, 소득 형평성이 사회적 형평성의 일정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형평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서문기(2015)의 연구가 있다. 서문기(2015)는 2014년 세계 가치관 조사(WVS)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 분배와 삶의 질을 연구하였다. 소득 분배는 객관적 지수인 지니 계수를 사용했으며 삶의 질은 주관적 질과 객관적 질로 구분하여 각각 인간개발 지수(HDI)⁴⁾와 세계 가치관 조사(WVS)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니 계수가 주관적, 객관적 삶의 질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형평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소득 형평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소득, 가치관, 정치 성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인 개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소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득을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만족으로

4) 문자 해독률, 교육기간, 1인당 구매력, 기대수명을 근거로 산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객관적 소득은 개인 혹은 가계에서 벌어들이는 절대적인 양을 의미하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 혹은 개인 소득 수준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자신의 소득 계층을 가늠함으로써 알 수 있다. 주관적 만족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여부를 의미한다.

임보영·마강래(2016)는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요인을 빈곤, 절대소득, 상대소득으로 구분했으며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은택·홍석동·마강래(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수준(객관적)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연옥·박재연·윤현숙(2011)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4-1 개인의 객관적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4-2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둘째,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15). 즉,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써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사회과학에서 가치관과 관련한 연구들은 가치관의 범위를 연구 목적에 맞춰 한정함으로써 가족 가치관(강성률·임성옥, 2014; 손승영·김은정, 2010), 직업 가치관(김재철·황매향·김아영, 2011; 윤지영, 2014, 임언·박보경·현진실, 2012), 주거 가치관(최정민, 2007)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가치관을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에 대하여 대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가치관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변수의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삶의 만족에 있어 가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고 있다. 김정엽(2010), 김대환·류건식·이상우(2011)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성은(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숙·김성진(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종교와 관련하여 전성표(2011)는 불교인, 개신교인, 천주교인, 무종교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집단 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에 비해 불교인과 무종교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현숙·권복순(2006)의 연구에서도 기독교인의 삶의 만족도가 무종교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가족과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 종교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가설 5. 전통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5-1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높히 평가할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5-2 종교의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IV. 연구설계

1. 자료

본 연구는 세계 가치관 조사(WVS)⁵⁾ 중 한국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개인의 삶의 만족

5)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사회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권, 국가 간 가치관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학술 프로젝트로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약 40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WVS)는 삶에 대한 인식, 일, 가족, 정치와 사회, 종교와 윤리, 국가관 등으로 가치관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으며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약 5년 주기(wave)로 조사되어 왔다.

도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한 직후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인 2001년, 2010년 그리고 이 두 시기와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1990년 자료 등 세 시기의 자료를 이용한다(아래 표 참조).

〈표 2〉 분석 자료

구분	기준 시기	IMF 경제위기 직후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시기	1990	2001	2010
응답자수	1,251명	1,200명	1,200명

2. 변수 및 측정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반영하는 측정변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둘째, 세 시기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측정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경제적 위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삶의 만족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제 지표들이다. 국민총소득(GNI)와 국민순소득(NNI)를 통해 국민생활수준을 가늠하여 국민 만족도를 예상할 수 있다.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Osberg와 Sahrpe가 제시한 경제행복지수, 오쿤의 고통지수(misery index) 등이 주요 지표로써 활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EHI 지수,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고통지수,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등이 경제지표를 근거로 삶의 만족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OECD의 분석을 근거로 한국의 경우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 외 다른 변수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객관적인 통계지표로써 나

타나지 않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인식적 자료를 활용한 지표가 더욱 적절하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신국민생활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는 양적 지표를 넘어서 질적인 부분까지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국민생활지표는 ‘풍요로움의 지표’라는 별칭이 있는데 여기서 풍요로움은 경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안심, 가치관, 국가 자긍심, 외국의 존중 등 포괄적인 개념이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와 같은 질적 부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동일한 지표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종단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장승진, 2009). 세계 가치관 조사(WVS)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있으며 10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이 불만족이며 10점이 만족상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신자유주의적 요인에 의한 외부 경제적 충격 요인, 사회 구조적 영향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적 충격요인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것이다. 사회 구조적 영향요인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영향력에 대한 변수를 설정했으며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선택 및 의지에 의해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1) 사회구조적 요인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의한 외부 경제적 충격 요인인 IMF 외환위기와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더미 변수로 측정했다. 즉 이 두 시기의 변화에

대한 기준 시기로서 1990년 자료를 상정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측정된 2001년 자료를 1로서 하는 변수(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을 1로 코딩한 변수(세계 금융위기) 등 두 개의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 두 개의 변수가 기준 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 충격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제도를 대표하는 국회와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였고, 사회 참여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의 경우 불매운동과 집회에 참여 정도를 통합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대인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자본의 경우 친구의 중요성을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인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변수로 채택했다. 단, 사회적 형평성을 소득 형평성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세계 가치관 조사(WVS)에서는 10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소득 형평성을 조사했다. ‘1점=소득은 더 공평해야 한다(Incomes should be made more equal)’부터 ‘10점=소득은 노력한 만큼 더 차이가 있어야 한다(We need larger income differences as incentives)’이다. 분석을 위해서 본 점수를 역코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사회가 형평성을 갖추기 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으면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개인적 요인

첫째,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수이다. 이는 객관적인 소득 정도와 자신의 현재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소득 수준과 소득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둘 다 있다. 객관적 소득 수준을 묻는 질문은 11점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1점=저소득층(Low step)’부터 ‘11점=고소득층(Highest step)’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10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1점=불만족(Dissatisfied)’부터 ‘10점=만족(Satisfied)’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변수는 크게 가족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

요성을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하위 변수로 구분하여 측정을 하였다. 세계 가치관 조사(WVS)에서는 종교의 중요성을 묻는 변수가 있으며 구성 형태가 가족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과 동일하다. 똑같이 4점 척도이며 ‘1점=매우 중요하다(Very important)’, ‘4점=전혀 중요하지 않다(Not at all important)’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측정한 문항은 4점 척도로서 ‘1점=매우 중요하다(Very important)’, ‘4점=전혀 중요하지 않다(Not at all important)’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개인 응답자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을 적용하였다.

〈표 3〉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조작화	측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개인이 인지한 상황이 스스로 설정한 만족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1:불만족-10:만족
독립 변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외부충격	IMF 외환위기	IMF 위기 직후 시기(2001)	0: 1990/2010년 1: 2001년
		세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직후 시기(2010년)	0: 1990/2001년 1: 2010년
	사회적 자본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국회제도 등에 대한 신뢰	통합척도(8점)
		사회 참여	불매운동, 정치적 집회 등 사회참여 정도	통합척도(6점)
		대인 네트워크	자신의 삶에서 친구와의 관계	리커트 척도(4점)
	사회적 형평성		소득은 공평해야 함~능력에 따른 소득차별이 있어야함	1:공평-10:능력에 따른 차별(역코딩)
	소득	객관적 수준	자신의 객관적 소득(수준)	1:저소득-11:고소득
		주관적 만족	자신의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	1:낮음-10:높음
가치관	가족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 정도	1:중요-4:중요하지 않음(역코딩)	
	종교	자신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정도	1:중요-4:중요하지 않음(역코딩)	
통제 변수	나이		-	비율척도
	성별		-	0:여자, 1:남자
	교육수준		-	1:무학-8:대학원 이상
	정치성향		정치적 성향의 진보적~보수적 정도	1:진보-10:보수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했다.

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빈도분석 결과, 총 3,651명 중 여성이 1,869명, 남성이 1,782명으로 나타났다.

〈표 4〉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여성	1869	51.2
남성	1782	48.8
총계	3651	100.0

삶의 만족도는 6.51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OECD(2015)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한 것과는 비교적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제도 신뢰는 5.33점(8점 만점 기준), 사회참여 5.64점(10점 만점 기준), 대인 네트워크 3.43점(4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10점 기준을 환산하면 사회제도 신뢰는 6.66점, 대인 네트워크는 8.58점으로 대인 네트워크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제도 신뢰, 사회참여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형평성의 경우, 4.98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현재 분배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소득 수준(4.50점, 10점 만점 기준)이 사회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소득 만족도(5.80, 10점 만점 기준)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중요성은 3.9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한국인이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2.64점(4점 만점)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정치성향의 경우, 5.80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정치성향이 약간 보수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6.34점(8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삶의 만족도	3588	1	10	6.51	2.211
사회제도 신뢰	3607	1	8	5.33	1.334
사회참여	3612	1	10	5.64	1.726
대인 네트워크	3636	1	4	3.43	.597
사회적 형평성	3631	1	10	4.98	2.841
소득 수준	3590	1	10	4.50	2.209
소득 만족도	3602	1	10	5.80	2.163
가족의 중요성	3647	1	4	3.90	.332
종교의 중요성	3635	1	4	2.64	1.020
정치 성향	3608	1	10	5.80	2.291
나이	3650	18	85	39.90	13.609
교육수준	3628	1	8	6.34	1.5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 소득만족도가 .522 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소득 만족도가 .379 수준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삶의 만족도	2. 사회제도 신뢰	3. 사회참여	4. 대인네트 워크	5. 사회적 형평성	6. 소득 수준	7. 소득 만족도	8. 가족 중요성	9. 종교 중요성	10. 정치 성향
1	1									
2	-.056**	1								
3	.024	.134**	1							
4	.051**	.012	.052**	1						
5	-.087**	.000	.064**	.007	1					
6	.233**	.063**	.072**	-.003	-.134**	1				
7	.522**	-.051**	.044*	.060**	-.148**	.379**	1			
8	.122**	-.050**	-.058**	.197**	-.045**	.026	.095**	1		
9	.118**	-.087**	-.046*	.067**	.007	.018	.063**	.140**	1	
10	.068**	-.104**	-.185**	-.066**	-.012	-.039*	.034*	.059**	.059**	1

* p<.05, **p<.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이 없으며 절댓값이 가장 큰 상관계수가 .522임을 고려할 때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설검정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요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⁶⁾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상수	1.193	.504		2.365	.018
IMF 경제위기**	-.546	.093	-.112	-5.889	.000
세계 금융위기*	-.194	.088	-.044	-2.200	.028
사회제도 신뢰	-.039	.026	-.024	-1.502	.133
사회 참여	.022	.030	.012	.749	.454
대인 네트워크	-.004	.059	-.001	-.075	.941
소득 형평성	-.015	.012	-.020	-1.241	.215
소득수준*	.045	.018	.047	2.525	.012
소득 만족도**	.487	.017	.483	28.345	.000
가족의 중요성**	.517	.103	.081	5.020	.000
종교의 중요성**	.134	.034	.064	4.007	.000
정치 성향	.027	.016	.029	1.723	.085
성별**	-.182	.067	-.042	-2.716	.007
연령	-.003	.003	-.017	-.876	.381
교육수준**	.071	.027	.051	2.605	.009
통계량	R ² =.304(adj R ² =.301) F=91.366**				

* p<.05, **p<.001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에 의한 외부경제 충격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두 변수 중 IMF 외환위기는 0.01수준에서, 세계 금융위기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개인의 삶의 만족

6) 변수별 VIF값은 1.019~1.664 범위 안에 모두 들어있으며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수(-)값으로 나오므로써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부 충격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실업률과 빈곤율을 높이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신자유주의 영향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고(신광영, 2008)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기준 시기에 비해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만족도가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확인함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1>을 보면 1998년의 경제 성장률과 2009년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욱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을 보면 1998년의 실업률이 치솟은 반면, 2009년의 실업률은 그 전후와 비슷한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강도로 한국 경제를 위협했으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이 IMF 외환위기에 훨씬 높아졌다.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비교



또한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의 기업 부실 문제와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꾸준히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토양이 1997년보다 좋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허찬국, 2009).

따라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금융위기에 비해 IMF 외환위기에 더 크게 떨어진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변수는 통상적인 신뢰수준인 0.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유의수준 0.133)은 아니다. 특히 이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공공영역(정부 및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둔 가설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IMF 경제 위기 당시 정부의 태도를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직전까지도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경제 위기에 대해 심각함을 모르고 있었다(조선일보, 2008). 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과소비,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 낭비가 IMF 구제금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4년 초등학교 사회과탐구 교과서는 과소비를 IMF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경향신문, 2016). 그러나 IMF 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기업,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등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금모으기를 통해 수집된 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원가보다 싼 값에 금이 팔려나갔고 국내 금 가공 업체는 해외 업체에 밀려 오히려 1만여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다(도현신, 20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들의 사회제도에 대해 불신한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소득형평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215). 다만 방향성을 보았을 때, 방향성이 음수이며 그 해석을 하면 소득의 형평보다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사용했다. ANOVA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형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차이를 각 시기별로 비교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의 경제적 위기 이후에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아래의 <표 8>을 보면 IMF 이전과 IMF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평균은 5.85, 4.45, 4.61로 나타났다. 해석하면 IMF 이전에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 좀 더 공평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반면, IMF 위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능력에 대응하는 차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으로 인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세계 금융위기보다 IMF 위기가 더 컸다.

〈표 8〉 사회적 형평성 분산 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 (Scheffe)
사회적 형평성	IMF 외환위기 이전	1236	5.85	2.38	93.438**	IMF 이전(IMF 이후, IMF 이전)세계금융위기 이후
	IMF 외환위기 이후	1198	4.45	2.15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97	4.61	1.87		

**p<.001

넷째,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변수인 객관적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관적 만족과 관련하여 표준화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삶의 만족도에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두 요인인 가족 및 종교의 중요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이 가족 및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종교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화, 민주화의 진행되며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에는 가족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교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종교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지적한 바, 종교에 대한 신뢰는 경제적 위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남자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족주의와 연관지어 해석해 보면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해체되어 가는 가운데 남자들의 소외현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분석에서처럼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아니라 개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 지고 있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구조가 전문가와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전재식, 2011). 고학력자의 취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교육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유행이 도래함에 따라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서구의 정부실패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인한 한국의 시장경제가 중공업 위주로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어 정상화를 위한 시장질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군부 정권이 한국 경제를 정상화 시킬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민주화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서툴렀다. 그 결과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못한 채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

IMF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기업 규제는 완화되었고 노동 시장은 유연화 되었다. 기업은 더욱 더 부유해졌고 국민들은 힘들어졌다. 결국, 통제되지 않는 자본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은 또 힘들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IMF 외환 위기와 세계 금융위기에 의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재편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안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시적 관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이다. IMF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형평성에 대해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신자유주의 충격이 발생한 이후 형평성에 대해 노력한 만큼 댓가를 얻어야 한다는 차별적 공정성을 중요시했다. 즉,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개인주의가 IMF 위기를 겪은 직후보다 약해지기는 했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해체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의 권리 신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행복감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여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해체 속에서 남성의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념적 보수성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보수성, 즉 신자유주의적 보수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막연하고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가 아마도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제도, 참여, 대인 관계를 봤을 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 과잉을 통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질서 및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즉,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사람

들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복지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간우선·조성재·조주현. (2012).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장애수용도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49-174.
- 강내희. (2008). 문화와 시장.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235-258.
- 강상경. (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성률·임성욱. (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혈통적 국민정체성이 다문화 배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91-120.
- 강은택·홍석동·마강래. (2015).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117-130.
- 경향신문. (2016). 외환위기 원인이 ‘과소비 탓’? 친기업·반노동 가르친 교과서. 4.29 (검색 일16.10.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219025#csidxe00c5e2189623ae8fbc227e33792bac
- 국가미래연구원. (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권재숙·김성진. (2012).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16(2): 23-45.
- 권혁창·여유진. (1999).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이념. 「비판사회정책」 (5): 13-45.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 중, 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연구」 22(1): 97-123.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재철·황매향·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정엽. (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2): 29-62.
-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경제와사회」 96: 210-251.

- 김춘택·박종우. (1999).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9(3): 21-33.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형기. (2016).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한·중·일 3국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경제발전연구」 22(1): 1-25.
- 김형주·강호영. (2012).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연구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 비교분석. 「회계정보연구」 30(3): 231-258.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도현신. (2015). 「국가의 배신」. 인물과 사상사.
- 리해근·하규수. (2012).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80-292.
- 문필동·이정화. (2015).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직무적합성의 조절효과. 「직업재활연구」 25(1): 59-83.
- 박재규. (200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학」 35(6): 79-104.
- 박현숙·권복순. (2006).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1): 48-56.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 서정민·김현준. (2013).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현대정치연구」 6(2): 157-186.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손승영·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현상과 인식」 34(4): 169-200.
- 신광영. (2008). 현대 한국 불평등 구조의 변화: 민주화, 세계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현대사회와 문화」 27: 5-33.
-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윤민재. (2016).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사회경제정책의 특징: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3): 609-634.
- 윤자영. (2012).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9(3): 184-211.

- 윤지영. (2014).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 「비서학논총」 23(2): 111-132.
- 윤희정·신자은. (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 이성은. (2012).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234-262.
- 이영균·최승인. (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51-180.
- 이영자. (2012).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자본주의. 「현상과인식」 36(4): 87-116.
- 임보영·마강래. (2016).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집계적 자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89-104.
- 임언·박보경·현진실. (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진로교육연구」 25(3): 19-37.
- 임연옥·박재연·윤현숙.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33: 7-44.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장진이·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 전성표. (2011). 종교와 삶의 만족도. 「종교와사회」 3(1): 9-38.
- 전재호. (2014).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1): 165-193.
- 전재식. (2011). 「고학력화와 학력별 취업구조 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득·이종석. (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 정순돌. (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59-79.
- 정순돌·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일진·정재희·김소영·김유나·김대선·탁진국. (2014). 청소년의 강점, 성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563-583.
- 조연상. (2012).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행복한 나라 만들기. 「재정정책논집」 14(4): 3-30.
- 조선일보. (2008). 대량 부도·실업(不渡·失業)…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이겨내. 8.18(검색일:

16.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8/2008081800051.html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_____. (2013). 한국의 국가 발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3-211.
- _____. (2015). 신자유주의 국가. 「경제와사회」 106: 360-406.
- 최외선·김한곤. (1988).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9(2): 291-323.
- 최정민. (2007). 강북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 주거가치관과 선호 주택유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2: 75-93.
- 최형임·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하상복. (2013). 전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종문화. 「코기토」 73: 525-560.
- 하연섭. (2006).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1-27.
- 허찬국. (2009).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최근 접속일: 16.10.27)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Imre Szeman and Timothy Kaposy. (2011). (Eds).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81-93. Willey-Blackwe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erny, P. G. (2006). Political Globalization and the Competition State. Richard Stubbs and Geoffrey R.D. Underhill, eds. *Political Economy and the Changing Global Order*, 3rd. Ed., 376-86.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 Diener, D.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Inglehart, R., & Tay, L. (2013). Theory and validity of life satisfaction sca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3): 497-527.
- Harvey, David. 최병두 옮김. (2005). 신제국주의. 한울.

- Heo, Uk & Roehrig, T. (2010). *South Korea Since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5). *How's life?* OECD Publishing.
- Panitch, L. & Martijn, K. (2009). Myth of Neoliberal Deregulation. *New Left Review* 57: 67-83.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World Values Survey (database)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최근 접속 일: 16.10.27)

백두산: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네트워크분석, 정책이론이다.

박치성: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ollaboration among Human Service Nonprofit Organizations: Mapping Formal and Informal Networks of Exchange, 2006),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네트워크 분석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Distorted policy transfer? South Korea’s adaptation of UK social enterprise policy”(2016), “Is ‘legitimized’ policy always successful?: Policy legitimacy and cultural policy in Korea”(2015) 및 “The Importance of Feedback: Policy Transfer, Translation and the Role of Communication”(2014) 등이 있다(csp7111@gmail.com).

투 고 일: 2016년 11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8일

부록

〈표〉 세계 가치관 조사(WVS) 중 연구에 사용된 변수

구분	내 용		1990(Wave2)	2000(Wave4)	2010(Wave6)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v96 Satisfaction with your life	v81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V23 Satisfaction with your life
독립 변수	사회제도 신뢰	신뢰국회	v279 Confidence: Parliament	v155 Confidence: Parliament	V117 Confidence: Parliament
		신뢰정부 서비스	v280 Confidence: The Civil Services	v156 Confidence: The Civil service	V118 Confidence: The Civil service
	참여	불매운동	v243 Political action: joining in boycotts	v135 Joining in boycotts	V86 Political action: Joining in boycotts
		집회	v244 Political action: attending lawful/peaceful demonstrations	v136 Attending lawful demonstrations	V87 Political action: Attending peaceful demonstrations
	대인 네트워크	친구의 중요성	v6 Important in life: Friends	v5 Friends important	V5 Important in life: Friends
	사회적 형평성	소득 형평성 (인식)	v250 Income equality	v141 Incomes more equal	V96 Income equality
	소득	소득수준	v363 Scale of incomes	v236 Scale of incomes	V239 Scale of incomes
		소득만족도 (주관적)	v132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v80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your household	V59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가치관	가족의 중요성	v5 Important in life: Family	v4 Family important	V4 Important in life: Family
		종교의 중요성	v9 Important in life: Religion	v9 Religion important	V9 Important in life: Religion
통제 변수	성별		v353 Sex	v223 Sex	V240 Sex
	연령		v355 Age	v225 Age	V242 Age
	교육수준		v375 Highest educational level attained	v226 Highest educational level attained	V248 Highest educational level attained
	정치 상황		v248 Self positioning in political scale	v139 Political scale	V95 Self positioning in political scale

Abstract

The Impact of Economic Shock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

Doosan Paik & Chis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conomic shock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Korea. Among ot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F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n economic shock caused by the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ere the focus of analysi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Korean data of 1990, 2001 and 2010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conducted with two crisis events as dummy variables. Economic shocks have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society. In specific, both IMF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gnificantly lowered the satisfaction level of Koreans' lives. In particular, the IMF crisis showed greater impacts on Korean society tha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such as strengthening individualism, dismantling patriarchal family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could be reinforced by neo-liberal economic shock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capital such as restoring the trust of social institutions.

Key Words: Neoliberalism, IMF, Financial Crisis, Life Satisfaction, World Values Survey